

주니어 학술대회
“한양도성 타임머신- 디지털세계에서 만나는 한국의 전통문화”

기록으로 보는 다양한 전통 무대와 공연 예술 풍경

20
22
-
12
-
16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인문정보학 박사과정 이한나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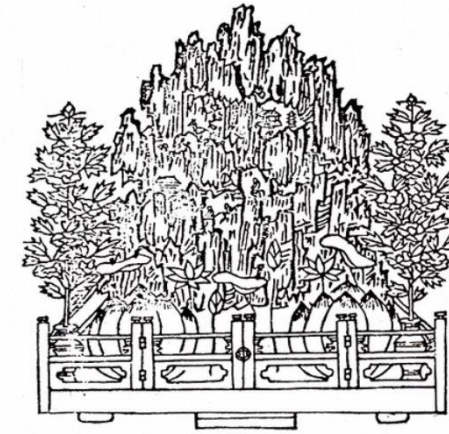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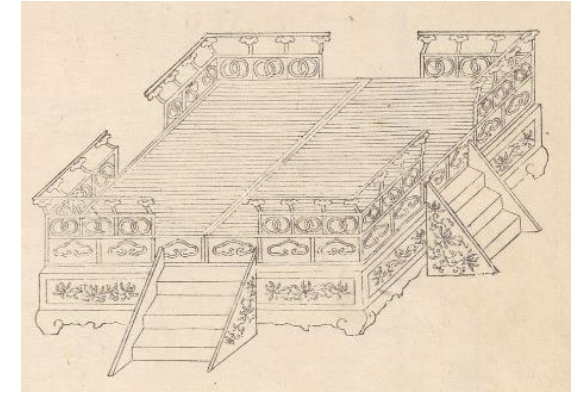
2021

장소, 사건, 인물을 주제로 한 2015년 이후 전시 & 공연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덕수궁, 대한제국 관련 전시, 공연 등의 역사·문화 콘텐츠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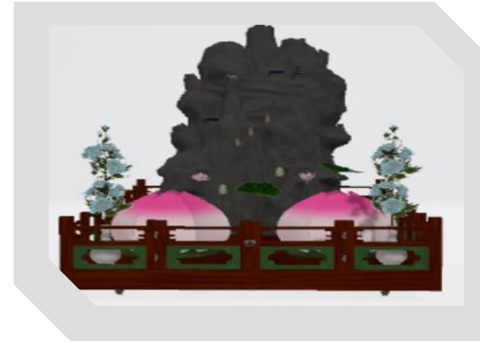
물품(Object) 3D Modeling 고증, 검수 및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궁중 연향에 사용된 공연 예술 물품
종묘제례에 사용되는 각종 제기, 종묘제례악에 사용된 악기와 무용 도구
창덕궁, 창경궁의 궁중 생활 물품과 왕실 인물의 유품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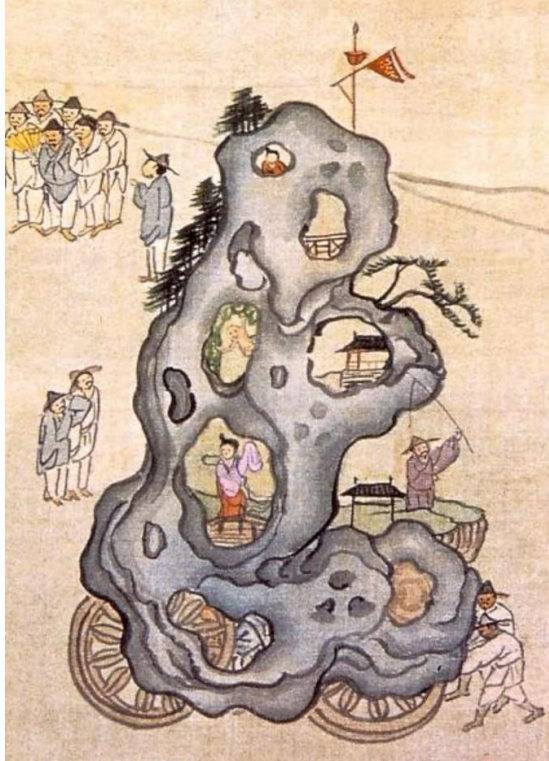
기록으로 보는 다양한 오브제와 공연 예술 풍경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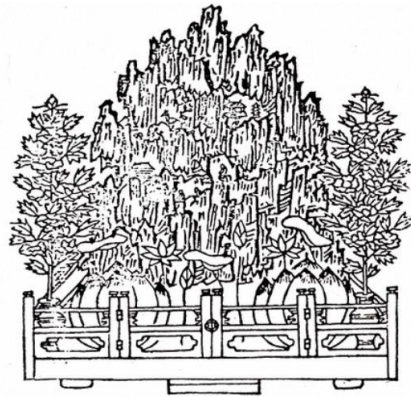


기록으로 보는 다양한 오브제와 공연 예술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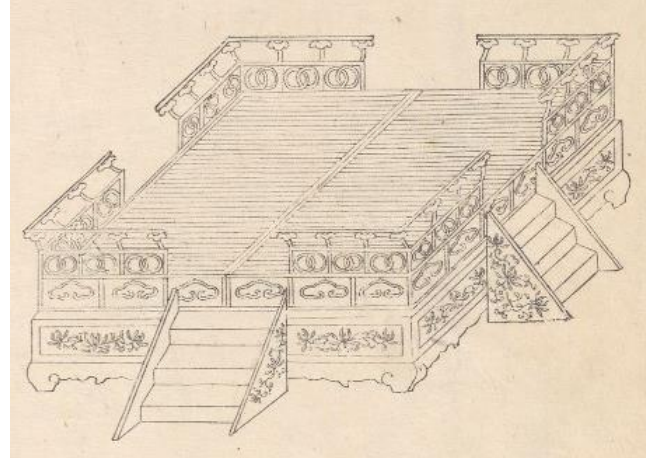
공연예술에 사용된 물품들



서사를 뒷받침해주는 장치



공연 예술 심상을 반영한 상징물



공연 무대



테마를 표현하는 소품

공연 예술이 펼쳐진 맥락

그 공연에 쓰인 오브제들

공연 예술 풍경을 상상!

1 환궁 행사와 '침향산'

1 '침향산'



『악학궤범』

“ 침향산의 모양은 나무판자로 산 모양을 만들고, 앞면과 뒷면에 피나무로 뾰족한 산봉우리를 조각하여 붙이고, 사탑·부처·승려·고라니·사슴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색을 칠하여 산골짜기에 놓는다. 앞에는 연못과 난간을 설치하고, 좌우에 꽃병을 놓고, 모란을 꽃는다. 안에는 연꽃통을 설치한다. 학(鶴)이 이 연꽃봉오리를 쪼는 시늉을 하면 그 속에서 동녀(童女)가 나온다. 밑에는 바퀴 네 개를 달아 침향산을 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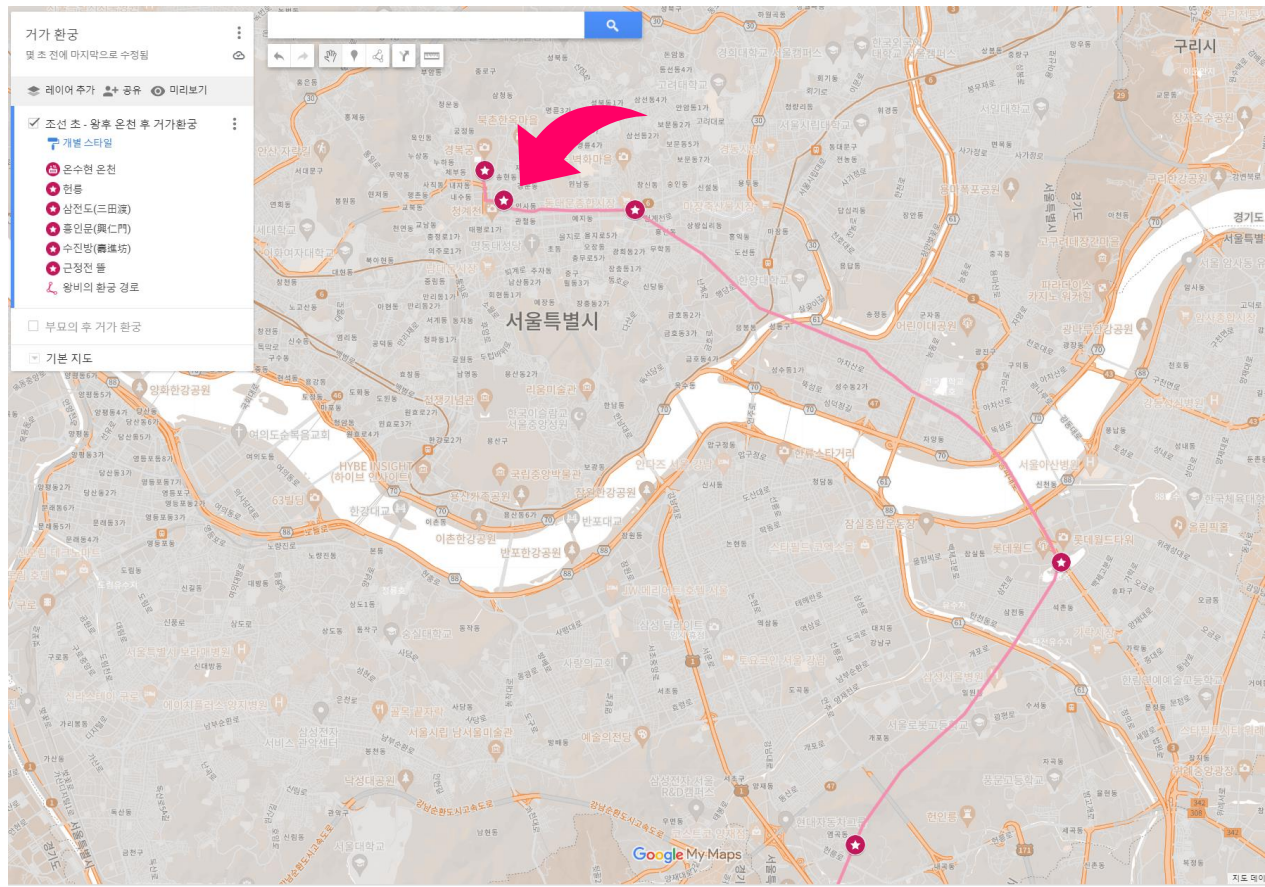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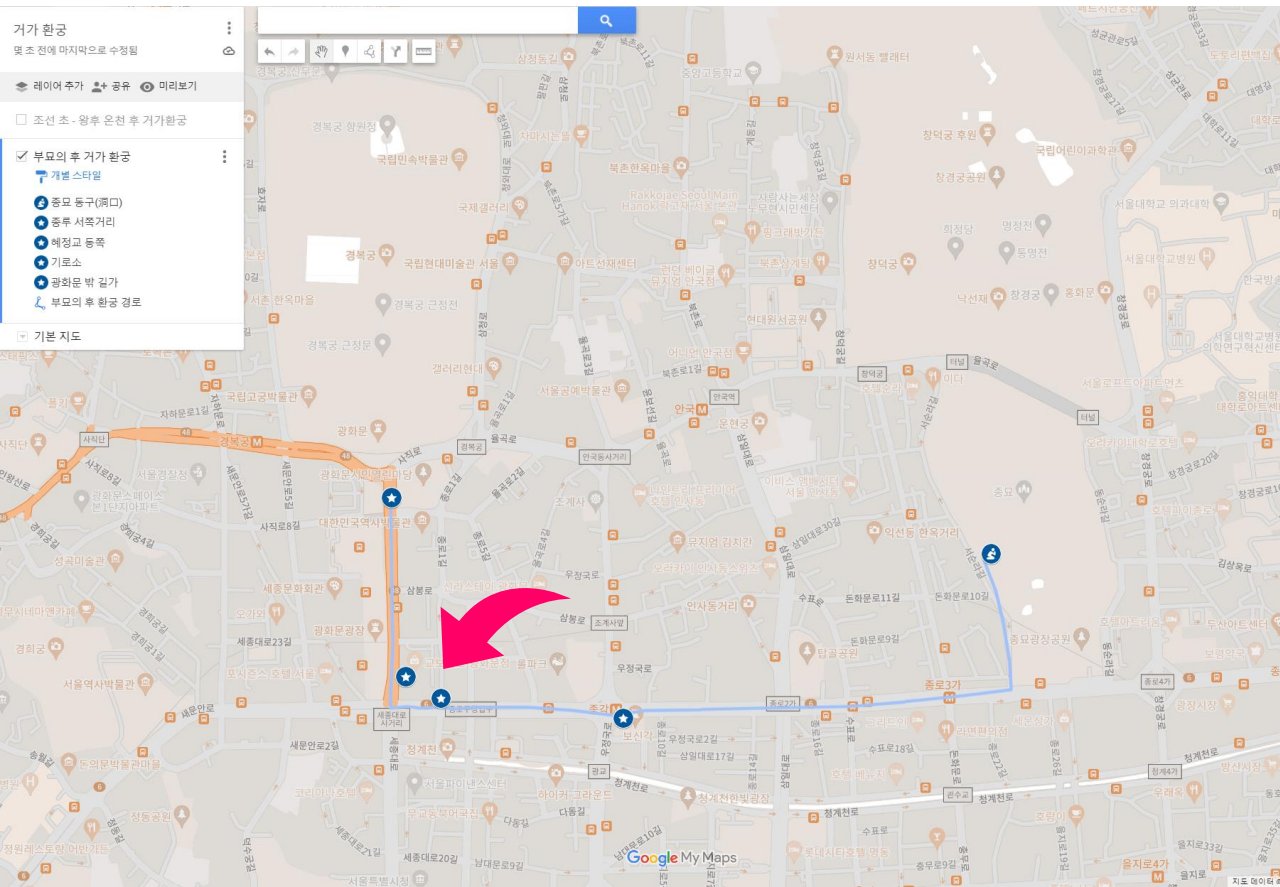
『악학궤범』 003책, 93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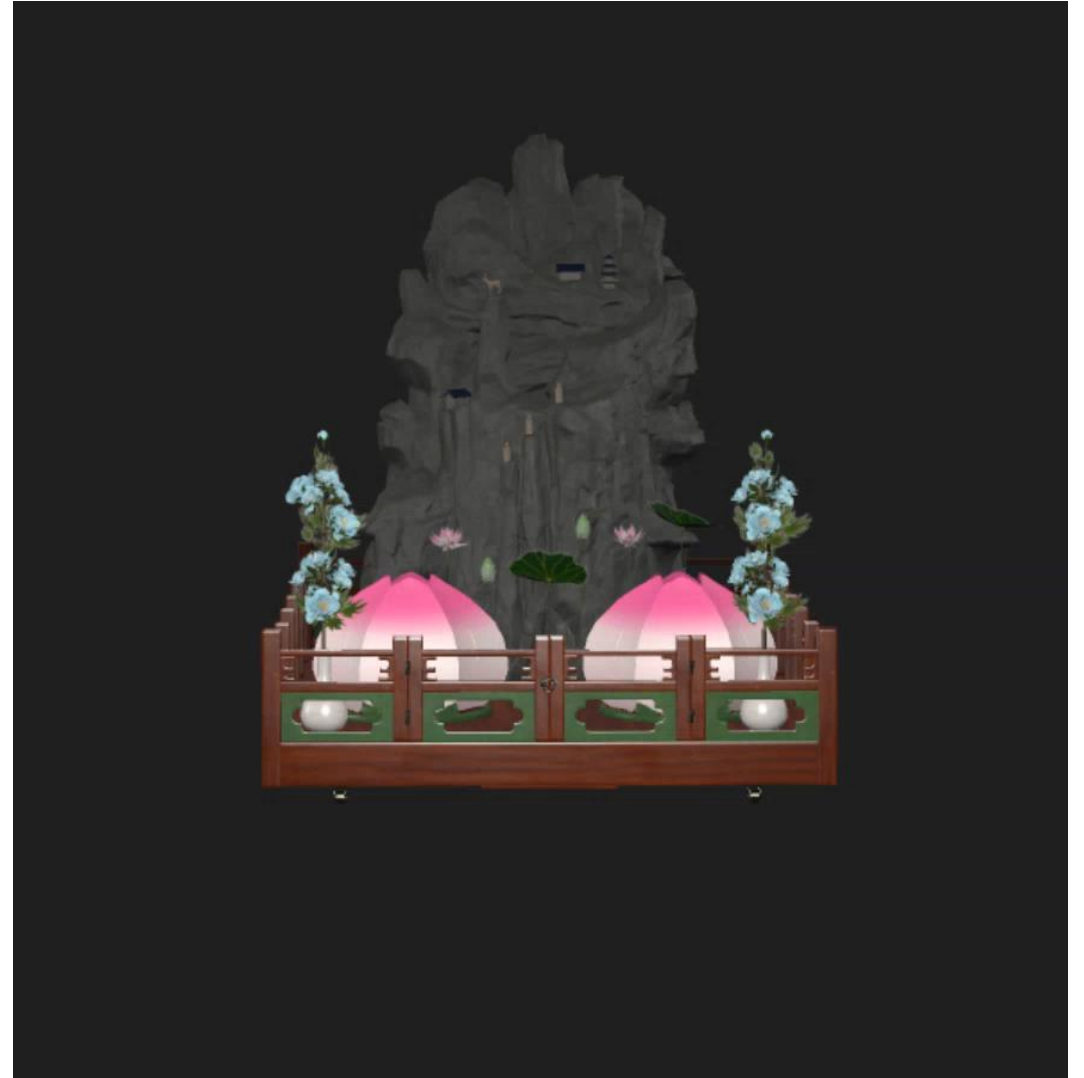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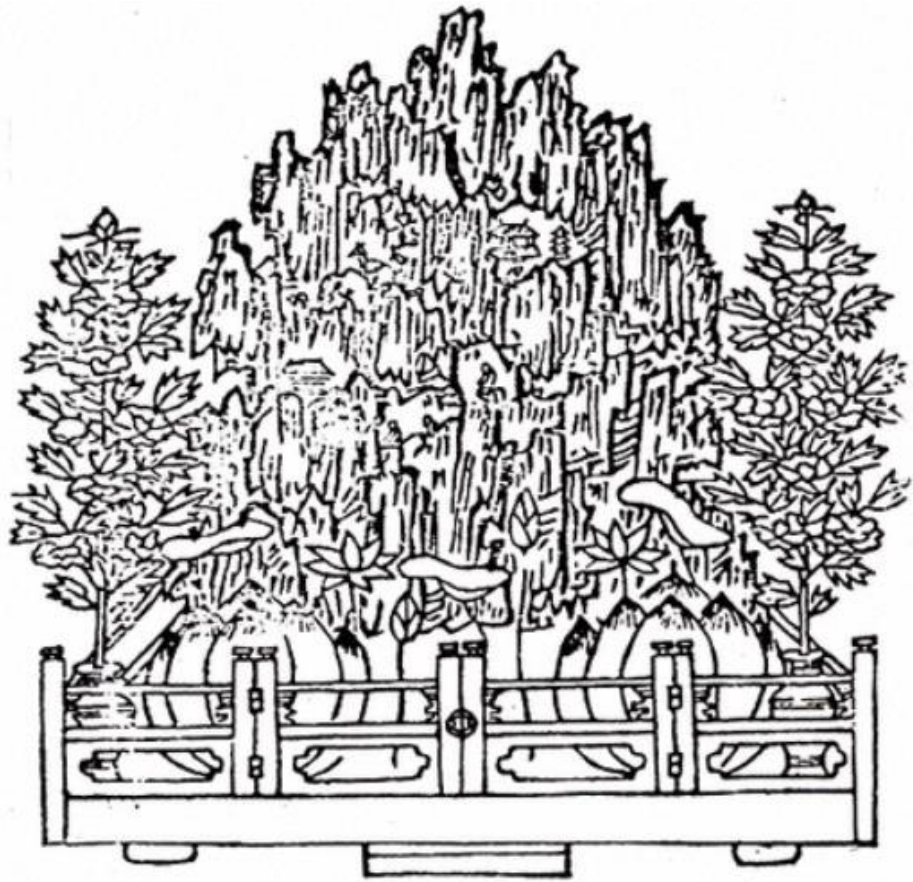
1 환궁 행사 왕, 왕비가 궁 밖에서 예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거행되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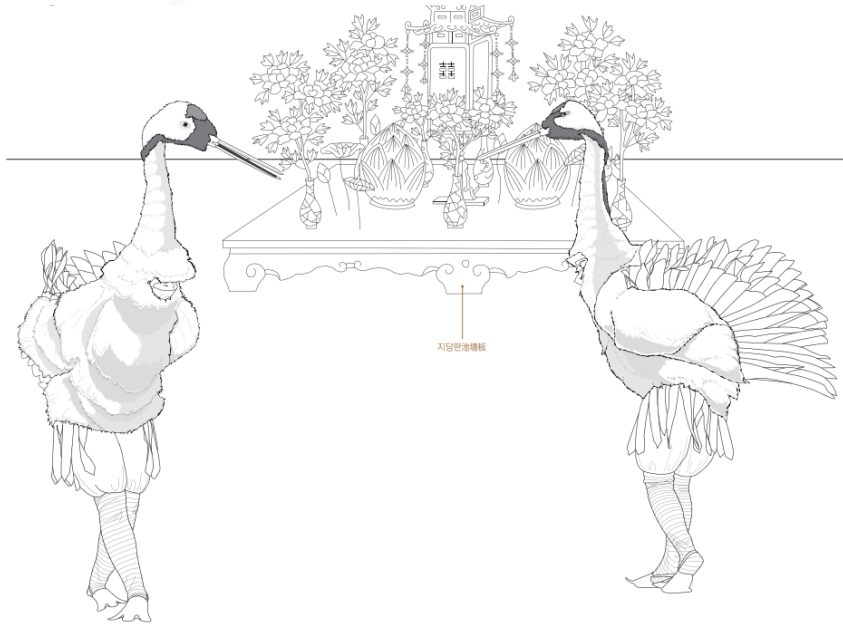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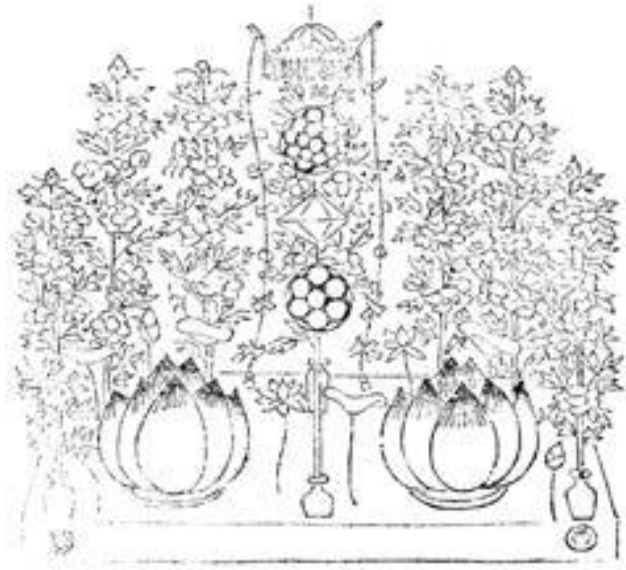
단종이 부모의(耐廟儀)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오는 경로
 : 종묘 → 종루 서쪽 거리 → **해정교 동쪽** → 기로소 → 광화문 밖

소헌왕후가 온천에서 궁으로 돌아오는 경로
 : 온수현 온천(現 온양) → 현릉 (세자) → 삼전도(왕세자빈, 숙의, 소용) → 흥인문(각 청 3인) → **수진방** → 근정전 뜰



1 환궁 행사와 침향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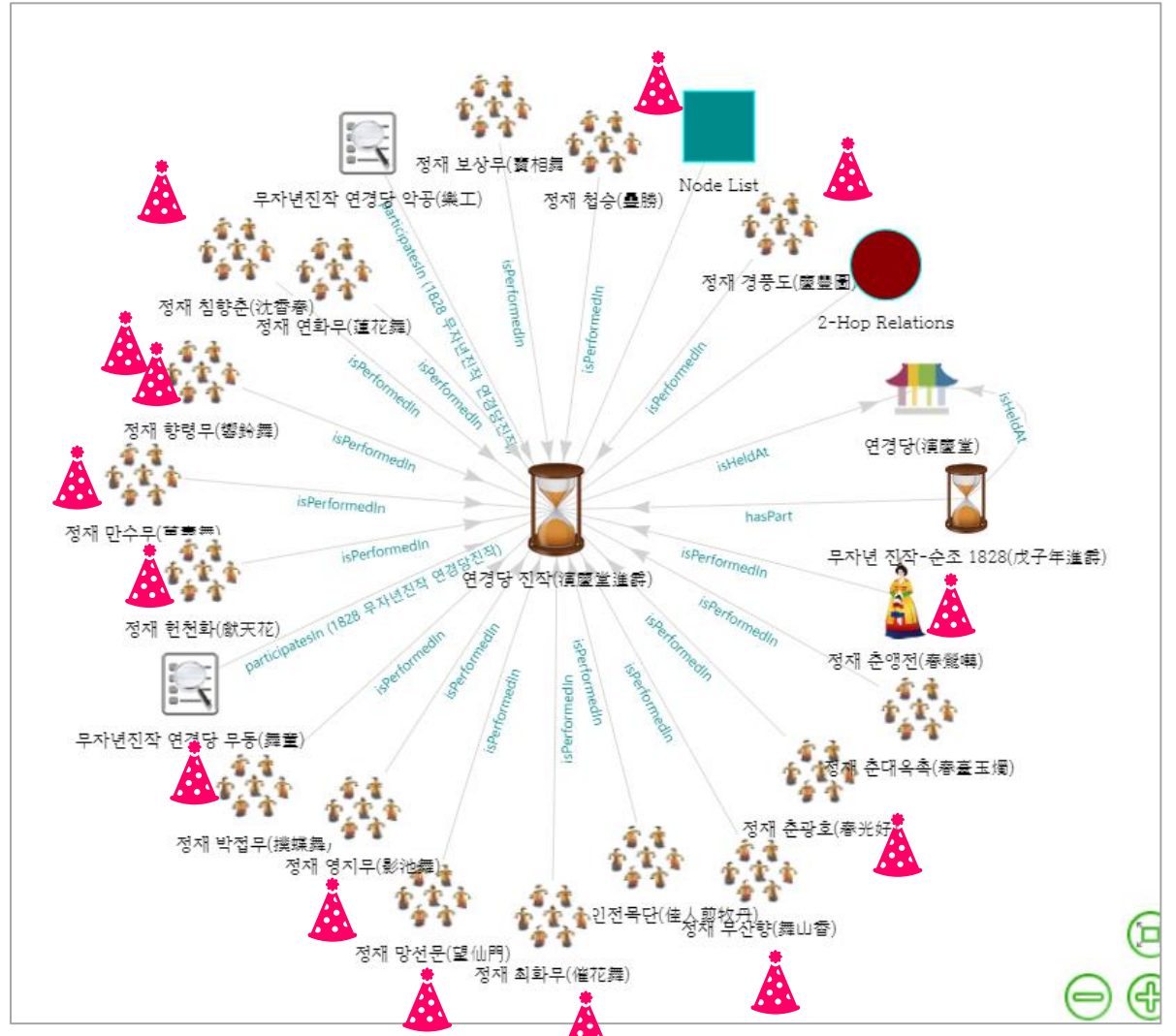


1 환궁 행사와 침향산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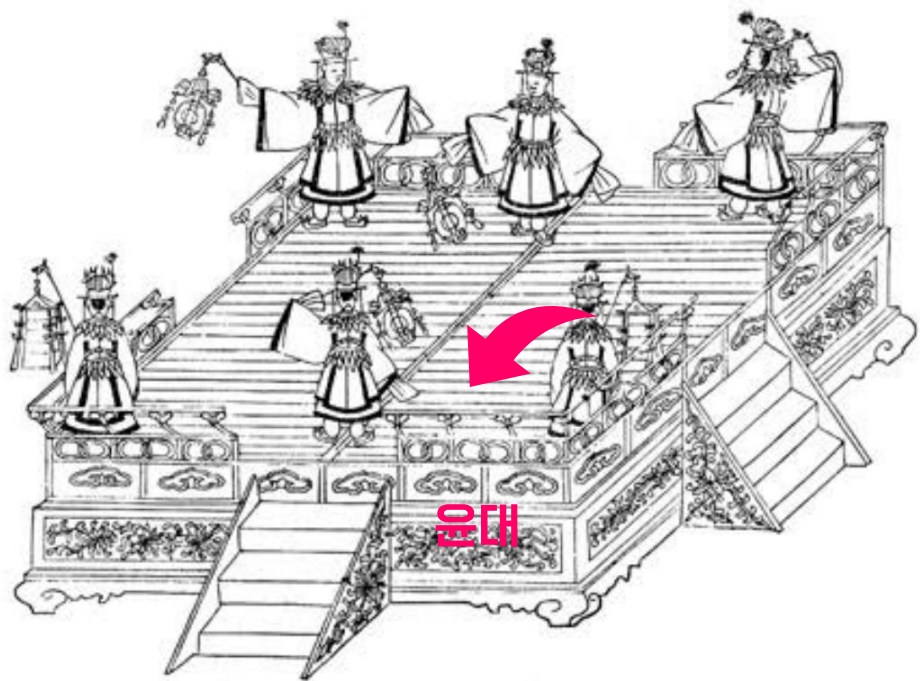
2 무자년 연경당진작에서 처음 선보인 '윤대', '영지', '대모반'

2 무자년 연경당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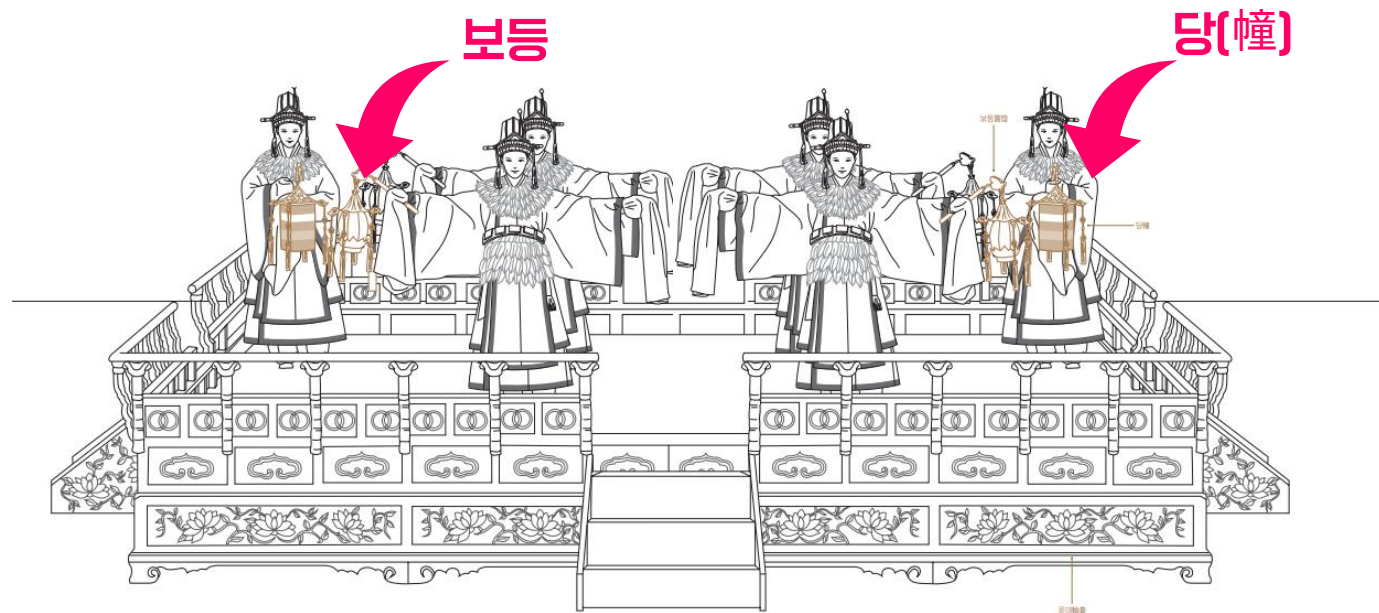


2 춘대옥축 '윤대', 영지무 '영지', 무산향 '대모반'

정재 춘대옥축



“ 사면에 계단이 있고, 구름문양과 태평화로 장식되어 있다. 보등을 든 4인의 무동이 3인은 앞에, 1인은 뒤에 서서 돌면서 춤을 추는 동작이 주를 이룬다. 당을 든 2인은 보등을 든 무동들 뒤에 좌우로 나뉘어 북향하여 서 있다. 『(순조무자)진작의궤』 003책, 55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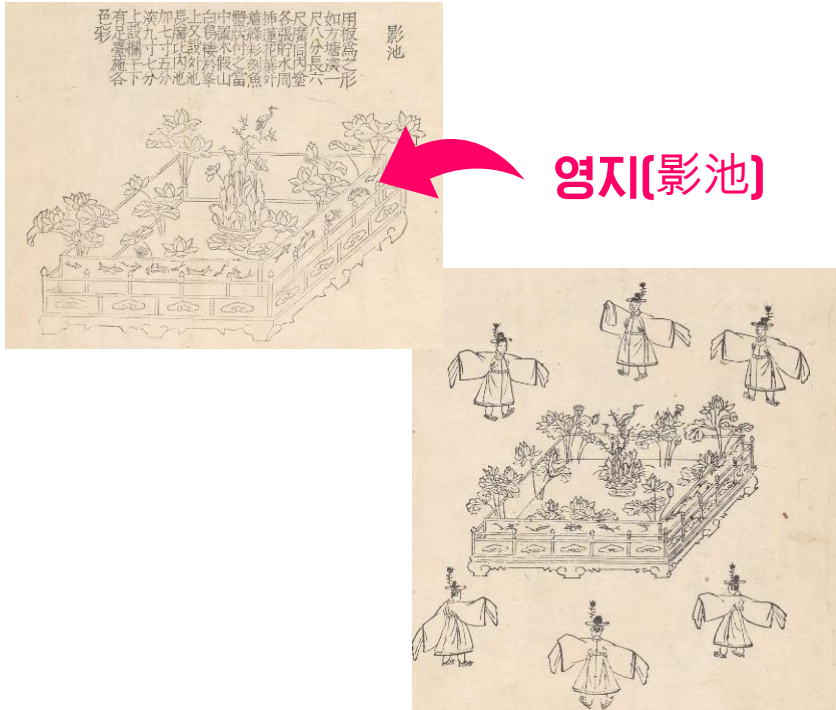
2 춘대옥축 '윤대', 영지무 '영지', 무산향 '대모반'

정재 영지무

“ 네모난 연못 모양이고, 각 장을 칠하고 물을 가두고, 연꽃 잎을
 꽃는다. 바깥에는 녹색으로 채색을 하고 물고기, 게 모양 등을
 조각하여 붙인다. 가운데에는 나무로 된 바위와 흰 새가 있다.

『(순조무자)진작의궤』 003책, 56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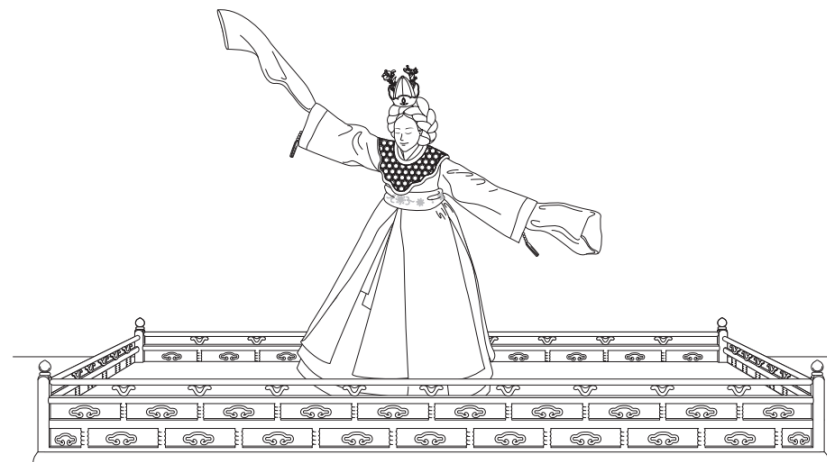
2 춘대옥축 '윤대', 영지무 '영지', 무산향 '대모반'

정재 무산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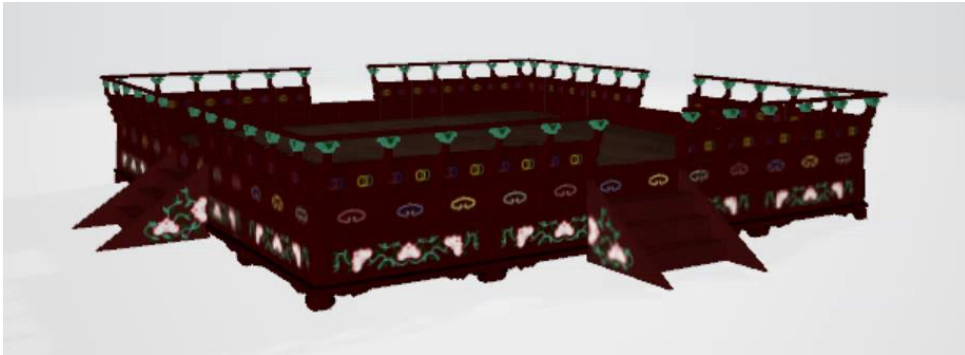
“ 사방에 태평화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난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쪽에는 대모 무늬가 채색되어 있다. ”

『(순조무자)진작의궤』 003책, 54면

대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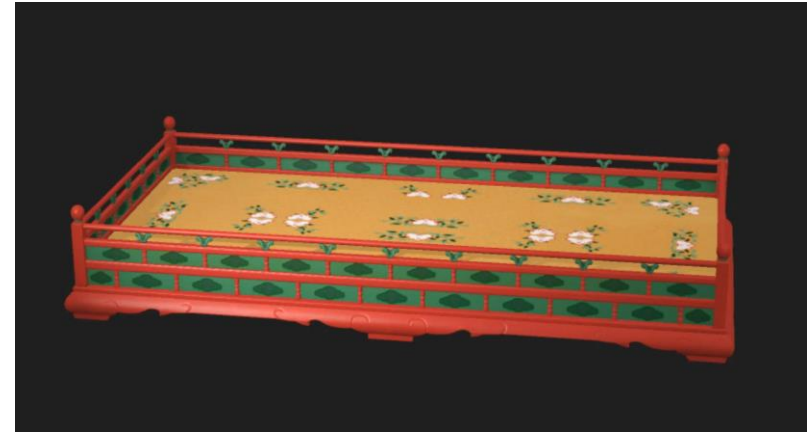
| 2 무자년 연경당진작에서 처음 선보인 공연 물품들



윤대



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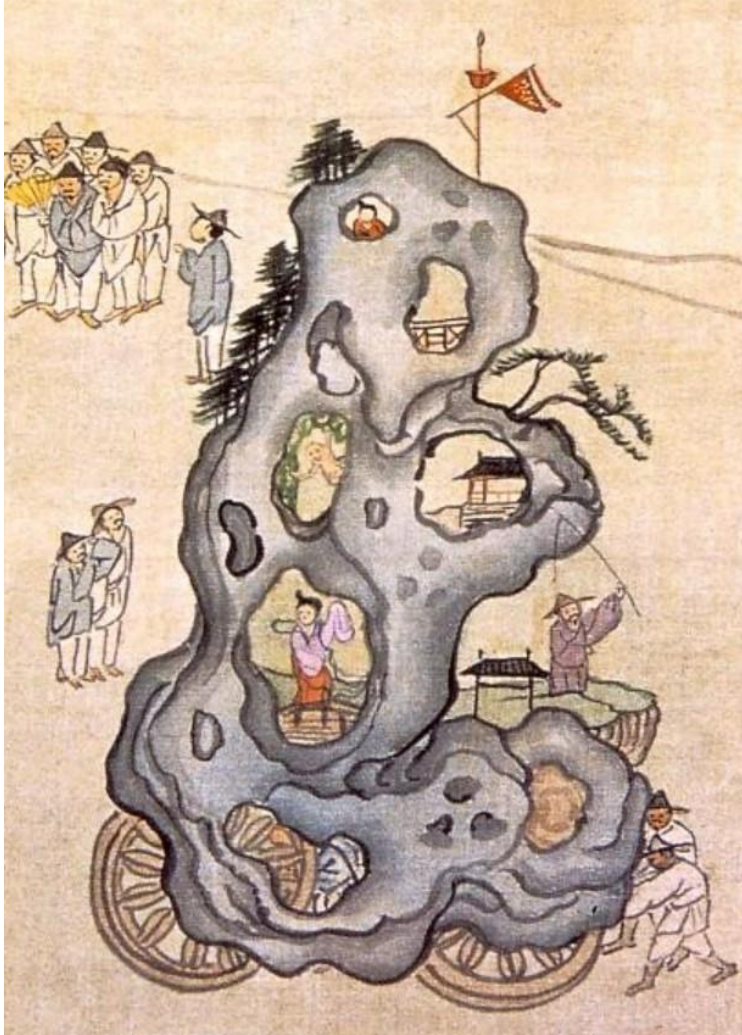
대모반

3 사신 영접을 위한 거리공연과 오토매타 무대 '예산대'

| 3 아극돈 《봉사도》 제7폭



3 기계식 무대장치 '예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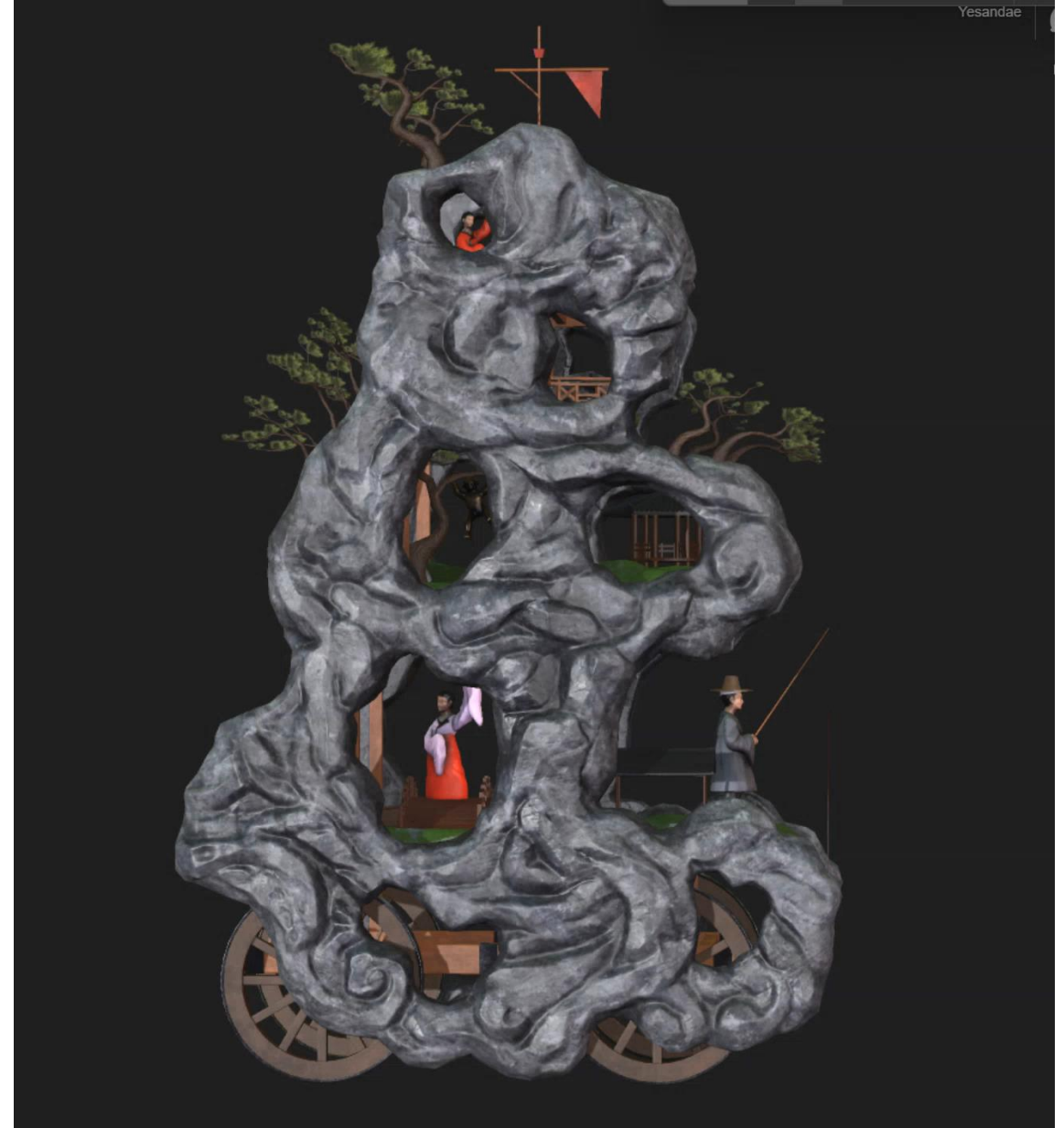
“

기암 괴석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기암 괴석 안에 노송(老松) 등으로 장식해 산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위 동굴 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 바위 동굴 안쪽으로는 너럭바위처럼 표현된 평평한 단이 있다. 이 단은 무대의 역할도 하는데, 대략 4층 정도이다. 아래부터 1층에는 두 개의 동굴이 뚫려 있는데 외쪽에는 엷은 머리에 분홍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은 여인이 춤을 추고 있다. 오른쪽 연보랏빛이 감도는 회색 도포를 입은 남자가 낚싯대를 들어 던지고 있다. 남자의 옆에는 동구 밖에 있음직한 홍살문 모양의 건축물이 보인다. 2층에도 2개의 동굴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산에 있음직한 누정이 한 채 놓여져 있다. 제3층의 동굴에는 목조로 된 듯한 구조물이 있다. 제 4층의 구멍에는 붉은 저고리의 여인이 보인다. 산대의 꼭대기에는 붉은 색의 삼각 깃발이 나부낀다. 각각 층마다 묘사된 것은 실제 ‘잡상’(오브제)로 보인다. 2층의 남자는 고사에 등장하는 ‘강태공’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 뒤편에 기관이 설치되어 노끈을 잡아 당기면, 인물이 기암괴석 사이로 나타나거나 춤을 추고 낚싯대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륜 바퀴이고, 앞바퀴, 뒤바퀴 각 2명씩 네 명의 사람이 조작을 한다.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樂·戲·劇』, 태학사, 2002.

”

3 기계식 무대장치 '예산대'



3 사신영접을 위한 거리 공연과 '예산대'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4 민간에서 궁중으로 유입된 정재 선유락과 '채선'

4 배따라기와 선유락

- 선유락은 지방에서 관기들이 연행한 것이 시작
-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일찍이 연행사 일행이 경유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명을 받아 먼 길을 가야 하는 사신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연향악이 발달



“ 우리나라 대악부(大樂府) 가운데 이른바 배따라기곡이 있으니, 방언으로 ‘배가 떠난다’는 뜻이다. 그 곡조가 몹시 구슬퍼서 애 끊는 듯하다. 자리 위에 그림 배를 놓고, 동기(童妓) 한 쌍을 뽑아서 소교(小校, 군교를 따라서 죄인을 잡는 사령)로 꾸미되 붉은 옷을 입히고, 주립(朱笠)·패영(貝纓)에 호수(虎鬚)와 백우전(白羽箭)을 꽂고, 왼손에는 활시위를 잡고 오른손에는 채찍을 쥐고, 먼저 군례(軍禮)를 마치고 첫 곡조를 부르면 뜰 가운데에서 북과 나팔이 울리고, 배 좌우의 여러 기생들이 채색 비단에 수놓은 치마를 입은 채 일제히 어부사를 부르며 음악이 반주되고, 이어서 둘째 곡조, 셋째 곡조를 부르되 처음 격식과 같이 한 뒤에 또 동기가 소교로 꾸며 배 위에 서서 발선하는 포를 놓으라고 창한다. 이내 닻을 거두고 돛을 올리는데 여러 기생들이 일제히 축복의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에 “닻 들자 배 떠난다. 이제 가면 언제 오리. 만경창파에 가는 듯 돌아오소.” 하였으니,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눈물질 때다. 박지원, 『열하일기』, 1780.

”

4 궁중으로 유입된 선유락



평안감사향연도 내 '연광정연회도' 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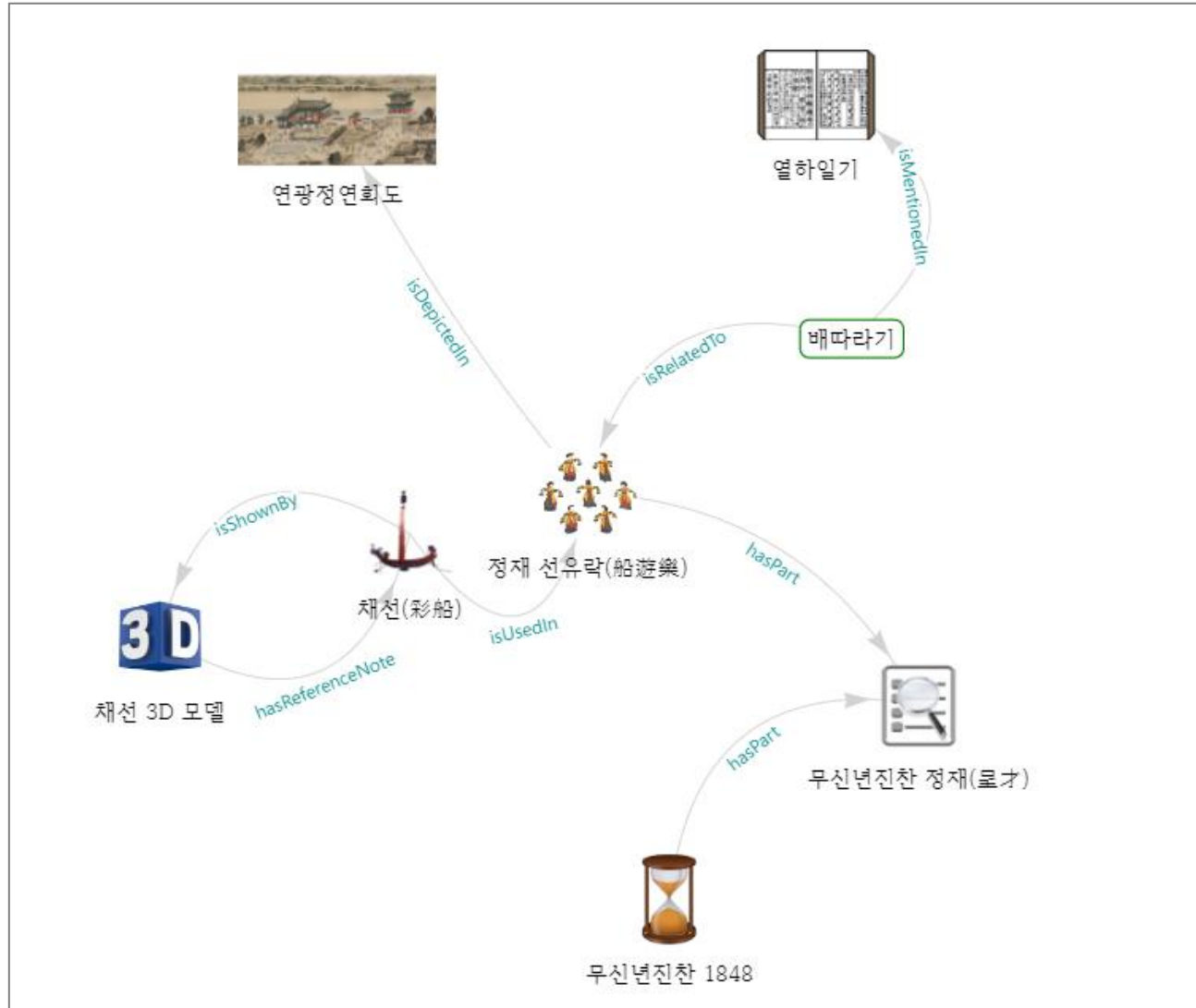
《신축진찬도병풍》(제7-8폭), 1901.

| 4 채선



4 민간에서 궁중으로 유입된 정재 선유락과 '채선'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